

♣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 9, 10).



전남 순천만 습지 갈대밭 생태공원 산책길에서,
2019년 10월 24일 오후 정용섭 목사 찍음.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의 2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50년 후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순간이 득달같이 달려온다는 명백한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일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완성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만이 오늘의 삶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상의 참되고 유일한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만을 찾으며 따르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큰 영광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능력이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시각을 허락해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이미 치료하셨고, 뜻을 알리셨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지키셨으며, 알게 모르게 참된 위로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7장(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 다 함께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홈 페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es>

이번주는
4층 시청각실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듣고 인생살이를 상투적으로 대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미심쩍어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돈과 권력에 기대서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많은 말을 하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불순종에 길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교회의 지난 2천 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쁨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38장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 다 함께

조계연

조계연

곳거리 (매김) (반음)

1. 어지신야 궤 궤 천 사 노래 불러 그 의사 랑 영 원 하시 다
2. 큰 빛 을 이 땅 에 내 려 주 - 셧 도 다

주 님 홀로 놀 라운 일 들 이루 셧 도 다 그 의사 랑 영 원 하시 다
낮 의 해 를 내 시 어 다 스 려 주 셧 도 다

지 혜 로 하 늘 을 - 만 드 셧 도 다 그 의사 랑 영 원 하시 다
밤 에 는 달 과 별 로 다 스 리 시 도 다

땅 을 물 위 에 펼 치 셧 도 다 그 의사 랑 영 원 하시 다
강 한 손 과 팔 로 인 도 하시 도 다

(다같이)

그 의 사 랑 영 원 하 시 다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과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한 방향을 안내해주는 등불이며,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를 한편으로는 솔깃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망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말에 기울어지지 않고/ 오늘 진리의 날 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불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하박국 1: 1-4, 2: 1-4 ... 김용성 집사

성시교독 시편 32: 1-7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복되기도 복되어라 이런사람 복되어라 거역한죄 용서받아 죄와허물 벗은사람
-주님께서 그의잘못 더따지지 않으시니 그마음에 거짓없는 이런사람 복있구나
내가입을 굳게닫고 죄를고백 안했을때 하루종일 신음으로 이몸탈진 되었다네
-밤낮으로 주님손이 이내몸을 짓누르니 이내몸은 여름가뭄 풀시들듯 말랐다네
주께죄를 고백했네 숨김없이 아뢰었네 주님께서 나의죄를 께히용서 하셨다네
-경건한자 고난때에 우리주께 기도하리 고난홍수 밀려와도 그를해치 못하리라
-주는우리 피난처니 곤경에서 건져내어 구원노래 찬양속에 모든곤경 없이하네

제2독서 데살로니가후서 1: 1-4, 11-12 ... 김용성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9: 1-10 ... 김용성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누가 읽은 자인가? ... 이준우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열 번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여러분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11월, 12월 교회 주요 일정

-11월 셋째 주일 (11/17) : 추수감사절 예배

-12월 둘째 주일 (12/8) : 정기총회 및 창립 11주년 기념예배

-12월 넷째 주일 (12/22) : 성탄 축하예배(교회학교 어린이 찬양, 전교우 친교)

* 정기총회 준비

-2019년도 교회 월별 활동보고 준비 및 회계장부 감사

-2020년도 운영위원 모집

-2020년도 집사 명단 정리

-2020년도 예약(예배실, 동아리방), 예배 준비(주보, 집기 등) 및 회계 담당자 재구성

* 2020년도 서울샘터교회 운영위원 및 각 파트 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11월 셋째 주까지 현 운영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헌금 800,000원(주일헌금: 600,000원, 통장헌금: 200,000원)

(2019/10/27)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10월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주일헌금	1주	364,000	담임목사 교통비	300,000
	2주	1,345,000	강사비	900,000
	3주	290,000	대관료	356,400
	4주	600,000	주보비	40,000
			교육비	120,000
통장헌금		20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선교헌금		100,000	선교비(뉴스앤조이, 새물결플러스)	100,000
			간식비	103,560
수입계		2,899,000	지출계	1,969,960
*수입-지출	(929,040)	전월이월액		3,053,749
		현 잔액		3,982,789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10주	11/3	4층 시청각실	이춘우	김용성	윤혜정
창조절 11주	11/10	4층 시청각실	정용섭	이유선	오미영
창조절 12주	11/17	4층 시청각실	박재진	신창식	양혜선
창조절 13주	11/24	2층 세미나 2실	이춘우	채진진	이기령

10월 27일 설교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을 자” 발췌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은 3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구원을 얻을 자는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이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 다 밝혀지지 않은 지금 구원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구원은 영원하고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은 쉼입니다. 영혼이 시달리지 않고 참된 평화를 얻는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엘을 비롯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계속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앗시리아와 바벨론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끊임없는 다툼이 이어집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로 서로 입장이 갈립니다. 시행착오가 반복됩니다. 청소년들의 안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처진 사람은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앞선 사람은 더 치고 나아가려고 정신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안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 저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안식일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들어도 많은 부분에서 교회개혁과 세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안식일은 일상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노예와 나그네와 일용직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짐승도 쉬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본으로 안식년 제도가 나왔고, 더 나아가서 희년 사상이 나왔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생태계 전체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교회는 가난으로 인해서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상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노동과 정의로운 복지와 인간 존엄성과 생태 회복을 교회가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성수주일’이라는 이름 아래서 주술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으로 격하시켰습니다.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고,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쫓김과 피로입니다. 피로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는 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특별한 날로 지키는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루터가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나타난다면 뭐라 말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변질했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義)를 붙들고, 은총이 아니라 인간 업적에 기울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가 제시한 믿음의 능력과 은총의 신비가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는지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향해서 참된 안식을 외쳐야 할 교회 안에 아이러니하게도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게 아닐는지요. 스스로 안식을 모르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안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요엘이 말하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오늘 여기서 실감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혼의 깊이에서 부르며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것입니다.